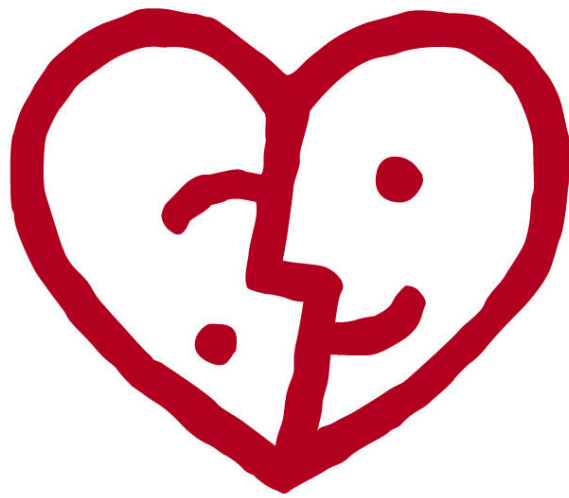

참여정부와 민간자원봉사계의 과제



- 일시 : 2003년 4월 30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
- 주최 : 한국자원봉사포럼
- 후원 : 행정자치부·삼성사회봉사단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s'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임원구성

- 회장 : 금창태(세종대학교 교수)
- 총무 : 이성철(남서울대학교 교수)
- 고문 :
 - 최일섭(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대 회장)
 - 이윤구(인제대학교 총장, 한국자원봉사포럼 2대 회장)
 - 조해녕(대구광역시 시장, 한국자원봉사포럼 3대 회장)
- 운영위원
 - 고진광(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구혜영(광진구자원봉사센터 소장)
 - 김길수(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 김성경(성서대학교 교수)
 - 김영호(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정배(한국청소년개발원 전문위원)
 - 김통원(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현옥(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 민경춘(삼성미래전략연구소 상무)
 - 박영숙(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 박재진(기업은행 인력개발부 교수)
 - 박현경(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 이강현(볼런티어 21 소장)
 - 이상진(학교자원봉사연구회 회장)
 - 이성록(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 이창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최성균(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장)

□ 사무국

우)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Fax : 02-778-1047
 E-mail : kovof@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차 례

포럼일정	1
시민자원봉사헌장	2
주제발표 (I)	
발 제	4
김용석 (청와대 시민사회 제2비서실 비서관)	
지정토론 1.....	7
권순남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지정토론 2	17
윤석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주제발표 (II)	
발 제	24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지정토론 1.....	35
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 소장)	
지정토론 2	37
조영진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소장)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포럼 일정

▶ **개회식 (14 : 00 ~ 14 : 20)** (사회: 이성철 한국자원봉사포럼 총무)

·국민의례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개회사 —— 금창태(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 **주제발표 1 (14 : 20 ~ 15 : 20)**

· 좌 장 : 최일섭(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 I : "참여정부의 자원봉사 진흥방안"

발 제 자 - 김용석(청와대 시민사회 제2비서관실 비서관)

지 정 토 론 - 권순남(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윤석인(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휴 식 (15 : 20 ~ 15 : 40)**

▶ **주제발표 II (15 : 40 ~ 16 : 40)**

· 발표 II : "자원봉사 전국기구를 통한 민간의 역할"

발 제 자 - 이창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부소장)

지 정 토 론 - 박홍순(열린사회시민연합 소장)

조영진(울산시자원봉사센터 소장)

▶ **전체토의 및 폐회 (15 : 40 ~ 17 : 00)**

시민자원봉사헌장

서 문

새 천년을 앞두고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별 제 1

참여정부의 자원봉사 진흥방안

김 용 석 <청와대 시민사회 제2비서관실 비서관>

참여정부의 자원봉사 진흥방안

김 용 석

청와대 시민사회 제2비서관실 비서관

1. 참여 정부

- 1) 노무현 정부의 탄생과 의미
 -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정부
 - 국민 참여에 승패가 달려있다
- 2)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 복지 공동체 사회
 - 국가경쟁력
- 3)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 전망
 - 민간 주도 국민운동
 - 민관협력 사업의 새로운 모델

2. 활성화 추진 계획

- 1) 민관의 협력체제 구축
 - 관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 민 : 자율성을 높여 나간다
- 2) 자원봉사 센터의 기본 역량 강화
 - 센터 활동가들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 자원봉사 관계자들이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 3) 자원봉사계 어른들의 역할 변화
 -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 센터 역량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3. □참여자원봉사활동□지원법 입법 전략

- 1) 국회 부분
- 2) 지방자치 단체장 관련 부분
- 3) 입법 역량 강화 부분
- 4) 정치성 배제 부분



지 정 토론 1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권 순 남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권순남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1. 현대사회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우리사회는 압축적 근·현대화와 사회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사회민주화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결속시켰던 공동체의 해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동시성과 비동시성’이라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의 주기로 많은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란, 정체성의 상실을 극심하게 겪으면서 인간관계의 약화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처럼 국가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결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통치방식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열린사회에서는 정부와 시민이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며 상호협력하고 책임지는 풍토와 체질개선이 매우 필요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시민들의 자율적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시민들은 과거의 억압적인 통치질서에서 발생되었던 경직된 사회적·인간적 관계를 청산시켜 내는데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의 기저에 있던 사회적 불신풍토를 척결시켜 나가는 노력에서부터 관 의존형 활동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자기 반성과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적 화두인 ‘참여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들의 공동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그동안 누적된 제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해체되고 있는 공동체를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학자들이나 수많은 사회활동가들은 사회공동체의 해체를 최소화하거나 사회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저마다의 처방책을 제시하거나 각자의 현장에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습니다. 이러 노력의 결과는 '사회공동체의 붕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조성시켰으며, 사회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는 제도적 문제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을 형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공동체 해체'를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다양하고 다기한 활동방법과 전술들을 구사하였지만 '사회공동체의 해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간의 갈등들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현상에 직면할 때마다 무기력감과 매우 곤혹스러운 심경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가진 사회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계발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사적 경험과 교훈 그리고 지난날의 변화의 소용돌이에 살면서 겪었던 소중한 경험들을 살려 새로운 국민운동을 계발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주는 휴머니즘적인 활동방식과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의명분속에 숨겨진 집단이기주의와 비인간적 요소를 고백하고 스스로 제거시켜 나가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생활의 연속성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2. 무엇을 할 것인가 ?

1) 자원봉사활동을 국민운동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발성과 이타성을 활동의 이념적 근거로 삼아온 자원봉사활동은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육성·발전되어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주창하는 '나눔'과 '참여'는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실천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속에는 공동체 해체를 막거나 복원시킬 수 있는 철학과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전통적 의미의 계급·계층운동과 소위 관변단체의 활동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계급·계층운동이 계급·계층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은 이타성을 중심에 놓고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관변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을 대변하거나, 운영의 방식이 관 의존형이라면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한 활동이며,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거나 사회구조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의 면면을 볼 때 그러한 지적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자원봉사활동의 흐름을 볼 때 그러한 지적들이 기우라 할 만큼 미시적이고 온정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영역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자원봉사활동의 영역과 내용이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범죄예방, 지역문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이 개발·운용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자원'의 개념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시대정신이 담겨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봉사'의 개념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타성과 사회구성원들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동'의 개념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철학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새로운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 희망이 넘치는 21세기의 미래를 개척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자원봉사활동을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육성·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자원봉사활동은 제도화정책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 앞에 놓여진 몇몇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모든 생활영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 지역과 지역을 통합시켜 나가는 대안의 국민운동으로 성장하고 정착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활동의 시대적 중요성에 비해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파편화 되거나 종합적인 정책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자원봉사센터의 전국 자치단체당 1개소 설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행·재정 지원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진흥들이 정책화·제도화되지 못한 결과에서 초래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서는 엄중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94년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이 여전히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편의적 접근과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이 현저히 침해받거나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종합적이지 못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책들이 일관성을 결여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의 부족에 따른 혼란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전략의 부재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정부차원에서는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홍보의 내용과 방식들 역시 자원봉사활동을 자선활동으로 등치 시키거나 자원봉사자들의 등록 실적에 집착하는 심각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국 자치단체 당 1개소의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자원봉사활동의 주요한 인프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로서 전문적 자원봉사관리자들의 육성·배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지도자 육성과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 교육·훈련시설을 비롯하여 자원봉사 상담실, 휴게실 등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3) 자원봉사활동의 건강한 지도력을 육성시켜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원봉사활동을 국민운동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문제나 제도화정책화시키는 것은 정부나 시민 모두의 공동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자원봉사활동의 철학이 온존이 계승·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의 지도력이 튼튼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력은 자원봉사활동의 시대적·역사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자원봉사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고, 자원봉사활동의 민간 자율성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이론과 행동의 통일로서의 실천(practice, praxis)'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지도력은 오랜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은 있지만 국민들에게 역사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지도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

다. 반면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론은 갖추고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의 품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지도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은 상층의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내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 이론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지역 및 계층적 특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지도력은 자원봉사활동의 일반론을 현실에서 발전시키고 구현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회변화와 통합의 동력인 자원봉사활동은 원시적 단계를 넘어 본원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축적·성장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국민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 구축에 비상한 노력을 경주할 때입니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

1) 자원봉사활동을 국민운동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자원봉사활동을 국민운동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응집력’과 ‘폭발력’있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응집력’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김용석 시민사회2 비서관의 발제에서 언급을 한바 있지만, ‘관은 적극적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민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실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계 내부에서 ‘역할’과 ‘기능’에 따른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할의 중복과 혼란은 응집력의 저해요인입니다. 행정기관, 협의·조정체, 교육·훈련기관, 조정·지원기관, 공급단체, 수요기관, 정부·광역·기초간의 역할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체계화될 때 불필요한 긴장·갈등이 해소되면서 응집력있는 활동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사업의 보조·하위 개념이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서 국민운동이라는 점을 대중적으로 확인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계 내부의 상호신뢰와 인내심 있는 협의·조정을 통해 역할과 기능에 따른 네트워킹을 주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폭발력’있는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전술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당위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켜야 합니다. ‘관심’은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참여’를 이끌어내는 출발입니다.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역적·계층적 토대를 바탕으로 전국적 차원의 ‘동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의식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언론사에서 주최하고 있는 ‘전국자원봉사축제’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시적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여 국민적 관심의 지평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차원의 캠페인, 전국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 언론사 주관하는 자원봉사 이벤트 행사(예 ‘자원봉사 열린음악회’ 등),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주간 선포, 자원봉사 캐릭터 공모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증폭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여 ‘폭발력’있는 사업들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계의 지혜와 힘을 결집시키고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2)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정책화시키기 위한 방법

‘제도’는 한 사회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며, ‘정책’은 활동방향과 내용에 대한 ‘총론’입니다. 이를 제한된 개념으로 표현하면 ‘제도화’는 법률적 뒷받침과 전담기구의 설치 여부로 집약될 수 있으며, ‘정책화’는 사업의 일관성, 지속성, 전문성, 추진주체의 형성 여부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정책화 시키는 문제는 자원봉사활동의 진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활동계는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정책화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추진 주체 형성의 미흡과 대외적 환경조성에 실패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정책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주체의 형성과 대외적 환경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추진주체의 형성입니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가칭)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 추진으로 추진 주체의 형성에 일단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내부의 자원봉사 지원법(안)의 내용들에 이견들을 조정·조율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입법화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칭)자원봉사지원법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가동하여 지원법안에 대한 합의된 내용들을 이끌어내는 한편, 세부사업

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외적 환경조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정책화 사업은 합법적 경로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활동계의 단합된 모습을 통하여 정부나 국회와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입법화이후에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개편(자원봉사과 설치 등), 전문적 인력의 배치, 자원봉사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및 사유화 방지,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훈련 등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원봉사활동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민서명 운동', '자원봉사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자원봉사활동의 과제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 등 일련의 기획사업들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정책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야 합니다.

3) 자원봉사활동의 지도력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법

어느 사회, 조직이든 간에 건강한 지도력의 형성과 발휘는 사회와 조직의 운명과 직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규모와 활동의 내용들이 대폭 커져버린 자원봉사활동의 미래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도력 강화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지도력 강화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 올바른 지도력인가'라는 문제이며, 두 번째는 '지도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며 세 번째는 '어떻게 올바른 지도부를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어떤 것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올바른 지도력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설계할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시종일관 견지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활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적·계층적 특성들을 살리면서 창의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의 환경을 개선·발전시키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 '지도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망성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가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지도자와 실무형 지도자를 균형 있게 배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분권화 시대와 자원봉사활동의 지역적 토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지도력들이 전국의 지도력으로 결합·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민주적 의견수렴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수의 전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의 분야에서 생성된 지도력들이 상시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올바른 지도부를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원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심 없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열정을 다 바칠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견지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정치적 훼손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원봉사 환경조성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속에서 지도력을 일정하게 검증 받았고 대표성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마무리

자원봉사의 전략적 과제와 현안의 과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임에도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은 현주소는 체계적으로 제도화·정책화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산적한 자원봉사활동의 과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사람의 열 걸음 앞섬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위해서’ 라는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전념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과 중지를 모으면 자원봉사활동의 국민운동화, 제도화·정책화, 지도력의 강화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일보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과제 】

□ 자원봉사활동의 정의(개념) 및 정체성 정립

- 사회복지의 종속, 하위 개념이 아닌 독자적인 국민운동 영역
- 상층위주의 의식운동이 아닌 대중적 실천운동으로 검증됨
- 자원봉사활동 단체와 기존 직능단체(관변단체)와의 구분 필요

□ 자원봉사활동 법적·행정 지원체계 정비

- 자원봉사 지원법 및 조례 제정
- 행정지원 체계의 단일화(부처별 중복 및 혼선)
-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부서 개입의 최소화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 확대(상해보험, 교통비 지급 등)
-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

- 자원봉사센터 재정 및 인력 확충
-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교육장, 휴게실, 상담실 등)
- 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육성
- 자원봉사활동 대 국민 홍보강화(정부차원 공익광고)
- 자원봉사활동 관리 전국 전산망 구축

□ 자원봉사센터의 자생력 확보

-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적인 재정 확보
-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개발
- 전국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교류 및 연대활동
- 자원봉사관련 제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조 형성
-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지도자 육성을 통한 활동의 안정성 확보

□ 기 타

- 자원봉사 관련 기구 조정
- 중·고교 자원봉사의 내실화
-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근무 평가 반영



지 정 토 론 2

참여정부의 자원봉사 진흥방안

자원봉사와 시민참여

윤 석 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참여정부의 자원봉사 진흥방안

자원봉사와 시민참여

윤 석 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총장

1. 들어가는 말

21세기에는 시민운동의 발달과 함께 한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아 지방 정치 참여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선진국에 경험을 보더라도, 수 십억에 달하는 시민들이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봉사를 하는 일에,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과 힘을 쏟고 있다. 이 모든 자원봉사 활동들은 자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사회에 대한 이들의 기여의 중요성이 때때로 망각되기도 했고, 특히 경제면에서 여러 사회적 자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거대한 기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유엔 (UN)은 2001년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Volunteer)로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자발적인 동기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의 행사이다. 보다 적극적인 시민정신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혹은 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인간의 잠재능력과 인간의 연대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며, 보다 나은 보다 평화로운 지역사회건설을 목적으로 당면한 문제와 도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88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라는 낱말이 우리국민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역사가 오래된 자원봉사단체는 물론 각 부처의 지원과 NGO의 탄생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또한 학생자원봉사활동과 젊은 언론의 자원봉사활동 소개로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 16%(세계 22개 국가 평균28%, 선진국 수준 50%)에 머물고 있다.

외국에 경우를 보더라도 영미 문화권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은 30%에서 35%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서구선진국(화란,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25%에서 40%가 참여하고, 동구권은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 자유를 상징하는 운동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에 경우 주로 기독교 신앙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봉사활동을 하며 주로 15%에서 20%가 참여하고 있으나 콜롬비아는 예외적으로 국민에 48%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대적 조직 관리 운영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아시아 지역도 아프리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몽골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20%에서 30%로 참가율을 추정하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 국가들은 사회복지와 개발에 관한 활동이 중심이 되며, 선진국 활동 분야는 건강(보건의료) 환경, 인권, 교육, 문화스포츠, 모금, 연구 활동 등을 들 수 있겠다.

3. 자원봉사의 의미와 NGO의 사회적 역할

오늘날 자원봉사활동이 어느 시대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그 의미를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연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1) 사회공동체의 약화 방지

첫째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생활이 복잡해지고 활발해 짐으로 생기게 되는 다양한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일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을 도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도 비공식적 원조 망이나 사회공동체가 수행하였던 역할을 대신하여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유지시켜 줌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2) 시민교육, 복지교육의 증진과 사회참여의 확대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활동은 과거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천되었으나 현재는 전 국민 모두의 전 생활과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제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나아가 민주주의 실현 및 사회 참여정신을 증진시키는 계기도 되는 것이다.

(3)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욕구의 발생에 대처

셋째는 도시화, 산업화 및 핵가족화 등 사회변동은 각종의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발생시키고 있다. 새로운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제도적 장치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욕구를 자원봉사자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고 손쉽게 이들 욕구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 전문 사회복지제고의 보완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4) 여가의 선용과 자아실현에 기여

넷째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활을 알게 되고 다른 환경에 접해 봄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생의 보람과 희망을 갖게 되며,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중 고등학생들을 유혹하는 많은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도덕적 사회적 성장경험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5)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일반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문제의 발견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효과적으로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기존의 거대한 관료조직은 때로는 경직되어 신선한 자각과 인식을 결여하기가 쉽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2) NGO의 사회적 역할

NGO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의 실체와 특성,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비영리 영역이 오랫동안 존재하여 왔고 그 역할이 중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세계는 전자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구 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나 비정부 단체 등의 인권의 문제, 평화와 정의의 문제, 평등과

자유의 문제, 생존권과 복지의 문제, 종교와 신앙을 토대로 한 삶의 질의 문제, 소수 약자와 난민의 권익 문제, 인구 증가와 환경 훼손의 문제, 가난과 질병의 문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자연자원과 통치권의 문제 등 열거하자면 계속 꼬리를 물고 나타날 긴박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UN은 이런 문제들을 상호 조정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결국 각 나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원봉사를 통한 NGOs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4. 자원봉사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

세계 역사의 관건이 될만한 일들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그것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는 정부 정책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가지 중요한 해결은 Grassroots 운동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실천운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특징은 그 대상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치중하여 발달했다는 점에 있으며, 봉사활동 방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자원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하기보다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 응급 대응하는 치료적 방법으로 결국 일회용 행사 중심으로 봉사활동이 행해져 왔다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캠페인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자원봉사센터가 지방정부의 부설기관처럼 운영되거나 관련 부서의 직접 통제 하에 있는 현상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또 민간 역량의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전문가도 없이 형식적으로 무리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그 목적은 바로 자원봉사활동의 인프라 구축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정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도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지원법(진흥법)은 그동안 자원봉사단체들이 10여 년간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여 법안을 제정요청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공감대형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의원입법형식을 거쳐 성안 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두 번씩 자동 폐기되었으며, 현재 상정된 법안의 제목은 과거와 같이 “자원봉사지원법”(안) 이지만, 그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지원법안으로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법안의

내용이 소수의 이익 집단의 불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또 하나의 관변 이익 집단이 등장하게 되므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반대의 이유이다. 자원봉사지원법은 반듯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은 자원봉사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안으로 통과되어 모든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자원봉사와 시민 참여의식, 사회 정치적 관계

시민이 인간복지의 증진에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시민의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이다. 왜냐하면 모든 공적·경제적·교육적·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은 시민참여의 질적인 정도에 의해 거의 좌우되기 때문이다. 시민은 사회적 불평등 및 제반문제의 해결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운동 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운동의 활동적인 성격을 보면 미국에서의 공동체운동, 일본의 주민참가운동 그리고 유럽에서의 환경보호운동 등을 볼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37-38)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를 보면, 둘 다 집단의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하여 자주 비판적인 대립적 균형을 이룬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한 결과로 정치와 정치조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며, 자원봉사자들은 자주 사회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서지만, 정부의 관여는 대체로 자원봉사자를 불신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정부의 관점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맞는 일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들 예를 들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특히 노인들을 돌보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높은 인정을 받게 되며 상호 기능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내의 조직들은 또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혹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것 역시 필수적인 사회적 역동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이점들은 정부가 자원봉사자들을 가진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6. 개선을 위한 제언

오늘날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는 “21세기엔 자원봉사활동이 최고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인류의 미래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선진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의 제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이미 민간 복지를 강조해 왔던 미국 등의 국가들은 특히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처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아예 교육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경우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자원봉사 국가정책이 시급히 요청되며, 둘째, 지도층의 인식 제고로 참여도를 높여야 하며 셋째, 자원봉사 활동의 지방화를 이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넷째, 중-고교-대학-기업 연계망 구축을 튼튼히 하는 체계적 운동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며, 다섯째, 자원봉사자 전문 관리자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모집, 배치, 지속적 활동으로 유도하여 기초를 철저히 하는 일, 여섯째,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사회 참여의 코드로 뿌리내리는 일, 끝으로 국제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질과 인식을 높임으로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싸여 있지만 우선 위에 과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시민사회 전체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여 자원봉사활동이 NGO운동 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별 제 2

자원봉사의 과제와 발전방향

이 창 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자원봉사의 과제와 발전방향

이 창 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1. 들어가며

이 글은 지난 10년간 크게 성장중인 한국 자원봉사의 활력과 새로운 현상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해 보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의 자원봉사는 눈부신 급성장을 거듭했다. 수많은 중,고,대학생, 주부, 노인, 직장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 자원봉사 활동을 펴고 있다. 그들의 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학교, 기업, 지역사회 등지에서는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돼 왔다. 중앙 및 지방정부들 역시 재정지원과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 왔다. 자원봉사지원법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중이다.

이 글은 먼저 한국사회에서 자원봉사의 과거 발전 및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 및 방향향을 제시하고자 준비가 됐다.

2. 자원봉사의 발전: 간단한 역사

1) 전통적인 지역사회 운동

한국에서의 자원봉사는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대로부터 한국의 지역사회는 전국에 걸쳐 그들의 독특한 상부상조 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발전시켜 왔다. 두레 (주민에 의한 공동체 운동), 향약 (공동체를 새우기 위한 규약), 계 (주민간의 상호대부), 품앗이 (이웃 노약자들을 위한 상호봉사) 등은 수백년동안 전승되어 온 몇 가지 사례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20세기들어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져 갔다. 그러나 계(契)와 같은 몇 가지들은 오늘날에도 지역사회들에서 존재하고 있다.

2) 근대적 자원봉사의 분수령: 1994년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사용된 것은 꽤 최근의 일이다. 그 용어는 수많은 스포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던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 올림픽 게임 기간 중에 처음으로 널리 사용이 되었었다. 그러나 그 경기들이 끝나자마자 그 용어들은 사회에서

사라지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칭할 때만 주로 사용이 되었다.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사회에 재등장한 것은 1994년도의 일이다. 놀랍게도 그때이후 자원봉사 운동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현재의 규모와 모양을 갖게 됐다. 1994년은 ‘한국 자원봉사 운동의 분수령’이라고 불릴 수 있다.

1994년에 학교, 기업, 그리고 언론에서 몇 가지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운동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 첫 번째는 대중 매체에서 시작되었다. 1994년 7월, 200만부 이상의 독자를 가진 한국의 두 번째 일간 신문인 중앙일보가 한국 언론계 사상 처음인 신문의 주요 공익 캠페인으로 대규모의 자원봉사 캠페인을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자원봉사에 관련한 신문 기사를 쓰고 한국판 ‘변화를 만드는 날’과 같은 다양한 자원봉사 이벤트를 펼치는 별도의 자원봉사사무국을 회사내에 설치했다.

자원봉사를 육성하려는 중앙일보의 노력을 곧바로 한 주요 대학과 한 재벌 회사가 뒤따랐다. 1994년 9월 한양대는 학생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단을 설립하고 10월엔 한국 최대의 기업 그룹인 삼성이 역시 사원 봉사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그룹내에 사회봉사단을 설립했다.

그 새롭게 늘어나는 자원봉사 운동은 역시 1994년 국회에서의 입법 노력으로 이어졌다. 1994년 12월 여당과 야당은 국민들의 봉사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각자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법안들은 그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1995년 자동 폐기됐다.

1994년말 정부도 역시 자원봉사 육성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1995년도부터 입학하는 모든 중학 신입생들은 졸업하기 전 매년 40시간의 자원봉사 점수를 받아야 할 것을 선언했다. 그 선언은 1995년 5월 교육개혁에서 보다 굳건하게 제도화되었는데, 이는 모든 중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선 몇 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3) 성장의 기간: 1994년- 2000년

1994년 이래로 한국의 자원봉사 운동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수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조직이 되고 다양한 제도적 조치들이 등장했다. 1994부터 2000년의 몇 년간은 한국에서 자원봉사의 도약기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진 영역별 주요 사회적 조치들이다.

(1) 중/고등학교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1995년 5월의 교육개혁은 모든 중 고등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선 졸업 전 몇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생활기록부’라 불리는 그 교육 조치에 따라 약 4백만 학생들은 연간 평균 수십 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만 했다.

그같은 교육적 조치의 본래 목적은 자원봉사의 '봉사학습'의 개념을 학교교육에 삽입시키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조치 직후 정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대도시와 도(道)에 15개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봉사학습은 아직도 학교에서 잘 수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봉사에 대한 단순한 강요는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2) 종합대학/전문대학

한양대 사회봉사단의 시작 이래 한양대 모델을 따라 수많은 대학들이 캠퍼스내에 비슷한 기구들을 설립해 왔다. 그들은 또한 학기 당 평균 1학점인 자원봉사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현재 100개 이상의 대학들이 매 학기마다 봉사활동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다. 한양대에서만 전교생의 3분의 1에 달하는 8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년 자원봉사 과목을 택하고 있다.

1995년 5월, 15개 대학의 총 학장들은 중앙일보의 지원으로 하버드, 컬럼비아 대학 등과 같은 미국 대학들의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둘러 볼 기회를 가졌다. 대학당국이 지원하는 미국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강한 인상을 받은 이들 귀국 총 학장들은 1996년 9월 91개 대학 총 학장이 참여하는 일종의 한국판 '캠퍼스 협약'(Campus Compact), 즉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를 조직했다. 그 협의회는 현재 전국에서 190여개의 회원들을 가지며 연중 세미나, 해외 NGO로의 학생 파견, 뉴스레터 발간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있다.

(3) 기업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삼성은 기업 자원봉사의 영역에서 한국의 선도적인 기업그룹이다. 동 프로그램의 시작 이래 그룹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에 매년 참가하는 삼성 사원들은 1997년 말 IMF 재정위기 때까지 전체 20만 명의 절반을 넘었었다. 아직도 약 2만명의 사원들이 전국에서 그들의 작업장 주위의 지역사회를 도우며 그룹 지원의 기업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 외에 한국 최대 제철회사인 포항제철(POSCO)이 또한 기업지원의 사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에 있는 1만명의 사원 중 약 2천명이 매년 자원봉사자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현대, 대한항공 등과 같은 다른 큰 기업집단들 역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코스의 하나로 사원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다. 즉, 신입사원들은 고아나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1994년 이후 일어난 변화들이다.

(4) 자원봉사 센터/ NGO들

1994년 이래로 한국의 자원봉사 성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자원봉사센터들을 포함한

수많은 NGOs/NPOs들이 전국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민간 및 자원영역에서의 자원봉사의 성장에 큰 인상을 받은 정부의 각 부처들은 1995년 이래로 자원봉사 센터들을 경쟁적으로 설립해 나갔다. 문화관광부는 1995년부터 전국 16개 광역도시들과 도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들의 설립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모든 도에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들을 설립했다. 1992년 여성 자원활동센터를 시작했던 여성부는 그들의 회원들을 확산해 나갔다.

행정자치부는 1996년 이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개설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 왔는데 그 수는 전국에 250개 센터에 달한다.

수많은 자원봉사 조직들과 자원봉사 NGO들이 역시 1994년과 2000년 사이에 등장했다. 1994년 4월 설립된 자원봉사계의 전국조직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그 기간 중 회원수를 36개에서 60개로 늘렸다. 1995년 설립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역시 회원수를 대폭 늘렸다. 1996년엔 한국자원봉스포럼이란 전국 학술조직이 창립되었다. 2000년엔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등장했다.

이같은 전체규모의 단체들 외에 수많은 지역 자원봉사 단체들이 1994년 이래로 등장을 했다. 자원봉사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NGO들도 모습을 보였다. 1999년 설립된 '세계청년봉사단'(KOPION)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국판 민간 평화봉사단(Peace Corps)인 KOPION은 매년 100여명의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전세계 20여개 나라에 보내 그들로 하여금 해외 NGO에서 평균 6개월간씩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있다.

(5) 이벤트 행사

1994년 10월 중앙일보는 현장 캠페인을 통해 자원봉사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자원봉사대축제'로 명명된 한국판 '변화를 만드는 날' 행사를 시작했다. 그 이벤트는 일주일간 전국으로부터 약 32만명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며 큰 성공을 기록했다.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그리고 많은 귀빈들이 동 행사에 참여를 했다. 전국자원봉사대축제는 2002년 제9차 대회를 마쳤는데 일주일간 약 1백20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참을 했다.

전국적인 컨퍼런스 또는 기념식이 역시 매년 개최되었다.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1997년 세계자원봉사협회 (IAVE)의 아-태 지역 컨퍼런스를 주최했다. 한봉협(KCVO)은 역시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주최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지역 자원봉사 이벤트들이 일년내내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

(6) 입법/ 체계적 접근

앞서 언급한대로 1994년 이래 자원봉사지원법을 통과시키려는 입법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법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정부지원의 전국 및 지역 자원봉사 인프라에 대한 자원봉사 단체들간의 의견 분화로 아직껏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

분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자원봉사센터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을 가지고 있다.

자원봉사 지도자 및 조정자들의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등장해 왔다. 한국 유일의 전문 자원봉사 훈련소인 볼런티어 21은 자원봉사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부산의 한국자원봉사연합회(FVEK)는 미국의 자원봉사행정 협회(AVA)의 후원아래 76시간의 훈련과정을 끝낸 자원봉사 조정자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왔다. 한자연은 1999년 9월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400명 이상의 자원봉사 지도자들을 훈련 시키고 수료증을 주었다.

4) 새로운 도약: 2001-2002년

(1) 2001년: IYV

세계자원봉사자의 해(IYV)인 2001년도 역시 한국의 자원봉사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다양한 전국적 및 지역적 행사들이 전국에서 펼쳐졌다. 2000년도에 조직된 IYV한국위원회는 2000년 5월 ‘물결운동’이라는 큰 전국적 IYV이벤트를 시작했다.

물결운동은 자원봉사 성화가 한 도시나 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 마다 자원봉사 단체들이 지역단위로 통합된 자원봉사 행사, 즉 IYV 기념식, 전시회, 자원봉사 실습 등과 같은 행사들을 전개토록 하는 것이었다. 전국의 16개 광역시, 도 모두가 동 물결운동에 참여했는데 이는 16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하는 규모이다.

(2) 2002년: 월드컵

2002년 6월 월드컵이 서울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일제히 개최됐다. 그 월드컵 기간중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은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 조직적, 비조직적으로 수많은 봉사활동을 했다.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자원봉사계의 또 하나의 분수령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만6천명의 월드컵 공식 자원봉사자들을 조직, 10개 도시 경기장에 배치했다. 그밖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수천, 수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경기장 안팎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십 만명의 붉은악마 응원단, 10만명의 서포터즈 봉사단 등이 국내외 선수들의 응원과 지원을 위해 봉사활동을 폈다.

덧붙여 중앙일보는 월드컵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 새롭고 대규모적인 무료 통역봉사 운동을 시작했다.

6월 한달간 전개된 중앙일보의 무료 통역 자원봉사 운동- BBB (Before Babel Brigade: 바벨탑 이전시대의 봉사단) 운동- 은 한국 자원봉사계, 특히 지식인과 상류사회의 자원봉사 운동에 신기원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개국 언어를 말할 줄 아는 2000명 이상의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BBB운동에 참여를 해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방한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BBB 운동은 2003년 4월중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3)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2002년 7월말 김천, 강릉, 동해 등 경북 및 강원도 전 지역을 태풍 루사가 쓸고 지나가면서 엄청난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가 나자 전국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지역으로 몰려 들었다. 7월 30일 발생한 강원도 수해의 경우 전국에서 한달 간 연인원 약 4백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구슬땀을 흘렸다.

자원봉사자들은 개인, 가족단위로 온 경우도 많았지만 자원봉사센터, 단체, 대학 단위로 온 경우가 많았다. 자원봉사의 전국적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을 실감케 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한번에 몰릴 때 그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재난관리 자원봉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4) 2002년: 세계대회

2002년은 또한 한국의 자원봉사계가 세계 자원봉사계에 문을 여는 해가 됐다. 부산의 한국자원봉사연합회는 2002년 4월 국제 자원봉사 관리협회인 AVA 아-태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아-태 지역의 자원봉사 기관 단체 및 국내 단체 등 5백 여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서울이 아닌 부산과 같이 지역 단위에서도 자원봉사 세계대회를 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됐다.

2002년 11월 IAVE(국제자원봉사협회)는 서울에서 제 17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 70여개 국에서 외국인 5백 여명이 참석하는 등 매일 1천명씩 연인원 약 1만명의 학자, 전문가, 자원봉사 조정자들이 참가,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개별 월샵만 1백 개가 마련이 되었다. 이 대회는 한국의 자원봉사계가 이젠 세계적 수준임을 과시하는 귀한 자리가 됐다.

3. 자원봉사의 현 규모

한국에서 자원봉사의 규모를 보여주는 조사 자료는 거의 없다. 약 10년전 한 사회복지 조사에선 한해에 봉사활동을 한 한국인 자원봉사자의 수가 약 3%로 조사됐었다. 그 퍼센티지는 전체적 그림을 주지 못한채 서베이때마다 수시로 변하곤 했다. 이는 서베이들의 관심이 모든 특별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진 유일한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 서베이는 2000년도 말, 또 2002년 말에 볼런티어 21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그 서베이에 따르면 2000년도에 자원봉사를 한 성인 인구율은 불과 14%였다. 이는 대체로 선진국 비율의 절반도 못되는 것이다. 그들의 자원봉사 평균 시간은 주당 2.2 시간이었다. 그 시간의 화폐가치는 한국의 전체 GNP의 0.58 %에 해당됐다. 중도탈락이 자원봉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2002년 서베이에선 자원봉사 참여율이 16.3%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점과 내용은 2년전과 비슷했다.

4. 미래의 과제

지금까지 묘사된 바와 같이 한국의 자원봉사계가 자원봉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다음은 그 과제들 중 몇가지이다.

1)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질적 통제

해결되어야 할 첫 번째이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원봉사에 대한 질적 통제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들은 졸업전 연간 15시간 등 한정된 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의 봉사활동은 많은 경우 단지 형식으로 흐르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봉사학습의 기법은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 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질적 통제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자원봉사 조정자들에 대한 훈련과 자격증 부여

잘 훈련되고 자격증을 받은 가능한 한 많은 자원봉사 조정자들을 확보하는 것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국에서 약 250개의 지자체가 그들 자신의 종합 자원봉사센터들을 설립했다. 그들 중 약 3분의 1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위탁, 운영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지자체 자신이 공무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모델이든 잘 훈련된 자원봉사 조정자들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종종 일반 봉사자들을 지도하는 혼란이 일고 있다.

3) 자원봉사 센터들의 육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자부는 지난 96년도부터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센터들의 설립을 주도해 왔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2백30여개의 시,군,구에 모두 설립이 되어 있고 그중 약 3분의 1 가량은 민간위탁, 나머지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상태이다.

자원봉사 센터는 설립이후 각 지자체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는 전문성의 문제이다. 센터들 중 대다수가 공무원이 직영하고 있고, 또 급조된 바람에 직원들이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단체들과의 불협화음이다. 아직도 많은 센터들이 관내 단체들과 업무 및 역할조정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센터들과 기관 단체들과의 관계 개선, 또 전문성의 향상은 향후 법정 조직으로서 센터들의 존립 여부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4) 긴급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태풍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재난관리 자원봉사 시스템의 미비이다. 사실 몇 년전 경기북부의 일련의 홍수피해, 지난해 강원도의 태풍 루사 피해때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배치받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모습들이 크게 부각되었었다. 현지에 자원봉사센터들이 있었어도 관 및 타 기관 단체들과의 협조체제가 원활하지 않아 전국 각지에서 온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재난관리 자원봉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선 평소 관·센터·기관 단체들이 상호 협동,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꾸준히 연습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 사회 지도층의 참여 확대

앞서의 설명처럼 우리나라 자원봉사 운동은 지난 10년간 엄청난 발전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몇 년전부터 연예인 및 전문 은퇴자들의 봉사활동 참여는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위 공무원·정치인·기업가·지식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아직도 자원봉사 활동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자원봉사협회(IAVE) 제 17차 세계대회 기간 대통령 부부만이 잠시 얼굴을 비쳤을 뿐 대회 기간 내내 고위층 및 사회 저명 인사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원봉사 운동을 지도층에 까지 확산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닐 듯 싶다.

6) 자원봉사지원법의 통과

한국 자원봉사계가 끊임없이 자원봉사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하는 중심이유는 그 법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험,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자원봉사 행정체계의 좋은 인프라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 및 잘 설계된 자원봉사 센터와 잘 훈련된 자원봉사 조정자들은 한국 자원봉사계의 오래된 염원이었다. 미국의 POLF(촛불재단)과 같은 전국적인 우산조직 역시 그들의 오랜 요청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자원봉사계는 정부나 입법가들이 그 법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자원봉사 관련부처간 또 센터 및 전국조직에 대한 자원봉사계 내부의 상호 이견과 대립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 각 부처가 이해관계를 내 보이고 기관 단체들 역시 정부지원의 자원봉사센터들을 법정 조직으로 만드는데 반대를 했다. 센터들은 무조건 센터만이 법정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한봉협 등 단체 중심의 전국조직이 법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 정부 각 부처, 자원봉사센터 및 전국조직의 탄생 및 체계모니를 둘러싼 이같은 대립과 반목은 한국의 자원봉사계가 자원봉사라는 고귀한 이름을 쓰는 일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한심한 일이 되어온게 사실이다.

5. 자원봉사 전국조직의 등장

그러나 이 글을 준비하는 2003년 4월 중순 현재 한국 자원봉사계에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고 있다. 바로 자원봉사 각 기관, 단체들이 자원봉사 전국조직의 설립에 동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라는 조직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2월부터 시작된 이 운동의 중심은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한봉협)이다. 한봉협은 현재 60여 개로 결성된 협소한 조직을 깨고

광범위한 전국조직으로 거듭나기로 결의하고 그동안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 기존 한봉협 밖에 있던 단체들을 모두 설득, 두 달 동안의 작업을 펼쳤다. 한봉협 및 센터협의회등의 합의로 추진된 이 전국조직 창설 작업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 전국조직이 갖는 의의, 향후의 과정, 과제등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본다.

1) 추진 일정

이 창설 작업을 주도해온 20여 개 기관 단체 실무자들의 타스크포스는 4월 초 3차 회의를 열고 정관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4월 17일 서영훈·강영훈 총재 등 10여 명의 주요 단체장들이 참가하는 속칭 원로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당시 원로들은 몇몇 세부적인 사항을 문제삼았으나 대체로 전국조직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타스크포스가 계속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희망했었다. 이에 타스크포스는 4인 실무위원들의 작업을 토대로 5월 2일 30여개 단체들로 확대 준비회의를 갖고 곧바로 전국의 기관 단체·센터들에게 발기 취지문과 동의서를 보내 전국조직에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타스크포스는 5월 16일쯤 30여 중심단체들로 발기인 대회를 갖고 5월 21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수백개의 기관 단체·센터들로 전국조직의 창립총회를 갖기로 했다.

2) 법적 형태

이 전국조직은 기존의 한봉협을 법적 틀은 그대로 두되 내용은 전부 바꾸는 소위 재창립하는 형태를 취할 예정이다. 즉, 기존 한봉협의 법인격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정관상 명칭·조직·임원 규정 등등은 일체 바꾸자는 것이다. 따라서 60여개의 한봉협 소속 단체들에겐 ‘확대 개편’ 형식이 되지만 한봉협에 속하지 않았던 전국 대다수의 자원봉사 센터 및 타 기관 단체들에겐 전국조직을 ‘새로 창설’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

이 전국조직이 탄생하기 위해선 이 조직을 한봉협 소속 단체들이 사전 혹은 사후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타스크포스는 발기총회 당일 한봉협 단체들이 별도 총회를 갖고 새 전국조직의 탄생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

3) 조직 성격

전국조직은 한편으론 범정치적 협의체로, 다른 한편으론 자원봉사의 전국 집행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봉사진흥법에 포함돼 법정단체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 전국조직의 정치적 성격은 무엇보다 한국의 자원봉사계가 하나로 뭉쳐 자원봉사법 통과 등 각종 제도적 작업을 리드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집행기관의 성격은 사무국을 두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교육·훈련, 인증 작업, 범국민적 프로모션·연구 및 정책 개발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실무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 사무국은 향후 산하 혹은 병렬조직으로

자원봉사진흥재단(전국센터)과 같이 별도의 조직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조직 구조

이 전국조직에는 자원봉사의 공급·수요·매개·연구 단체 등 자원봉사와 관련된 조직이던 어느 조직이나 회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자원봉사 센터·기관 단체들을 물론, NGO·사회복지관·대학·기업체 봉사단·연구소 등 일체의 조직들이 회원 단체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정관은 또 참가단체들의 규모에 따라 A그룹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부를 가진 단체), B그룹 (2개-9개의 지부를 가진 단체), C그룹(지부가 없는 단체)으로 나누어 대표 및 이사 등 임원수를 균등 분할하고 권리와 책임도 명시할 예정이다.

임원은 5인 이하의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를 두고 비상근 상임대표, 상근 사무총장 체제로 운영토록 할 작정이다. 사무총장은 실제로 CEO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5) 자원봉사법 제정 문제

이 전국조직은 한국의 자원봉사계가 그동안의 대립, 반목을 청산하고 하나로 뭉쳐 정치적 및 실무적인 힘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계획대로 이 전국조직이 탄생되고 이와 함께 연내에 자원봉사법이 제정된다면 한국의 자원봉사 운동은 또 한번의 큰 분수령을 맞는 셈이다.

새 한봉협은 전국조직의 탄생작업과 동시 자원봉사법 추진위원회도 별도로 구성, 법 제정 작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각 부처 및 기관 단체·센터들이 모두 모여 다시한번 허심탄회하게 법안을 논의케 할 예정이다. 그후 민간차원의 단일법안이 마련되면 여·야 각 당을 방문, 상반기 중에 의원입법으로 자원봉사법을 통과케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이미 내년 총선 분위기에 휩쓸려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새 전국조직의 계획대로 자원봉사법이 무사히 통과되고, 이 전국조직 및 지역 센터들에 예산이 부여된다면 중앙엔 자원봉사협의회 및 산하 재단(전국센터), 각 지역엔 지역 자원봉사 센터들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센터와 단체들이 상호 신뢰속에 역할 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필자가 문제삼은 앞서의 과제들도 어쩌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 5월의 추이에 한국 자원봉사계의 앞날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 정 토 론 1

자원봉사 전국기구를 통한 민간의 역할

박 홍 순 <열린사회시민연합 소장>

자원봉사 전국기구를 통한 민간의 역할

박 홍 순

열린사회시민연합 소장

1.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

- 1)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의 원칙들이 내포하는 의미
- 2) 제3섹터의 운영원리로서의 자원봉사 : 미래사회를 위한 희망

2. 한국 자원봉사운동의 명암

- 1) 90년대 중반이후 자원봉사의 비약적 성장 요인
- 2) 구태의연한 관리시스템과 자기중심주의
- 3) 시민운동과 풀뿌리지역사회의 새로운 시민문화 형성

3. 자원봉사 전국기구 추진의 의미

- 1) 자원봉사계의 통합과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
- 2) 자원봉사센터 등 전문역량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역량의 합류
- 3) 자원봉사 지원시스템 정비와 체계화의 계기
- 4)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 : 협의회, 연합, 네트워크, 지원기관

4. 바램-기본정신에 충실하자.

- 1) 밑으로부터(bottom-up) 방식의 중요성
- 2) 다양성, 창의성의 존중과 효율적 지원체계
- 3) 자율성, 자립성은 자원봉사의 생명원천



지 정 토 론 2

자원봉사의 현안과제와 전망

조 영 진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자원봉사의 현안과제와 전망

조영진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소장

1. 들어가며

자원봉사의 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자원봉사운동의 역사를 중요이슈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잘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과제에서는 ①학생봉사활동의 질적통제 ②자원봉사조정자들에 대한 훈련과 자격증부여 ③자원봉사센터들의 육성 ④긴급재난관리시스템 구축 ⑤사회지도층의 참여확대 ⑥자원봉사지원법의 통과에 대해 제시하였고, 특히 자원봉사전국조직의 창설에 그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이러한 전반적인 기조에 동감하며,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한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계가 지향해야 할 바를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안들은 생략하고 과연 우리가 자원봉사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지향해갈 것인가의 물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2. 최근 자원봉사현장의 상황

최근 우리사회의 자원봉사현장은 외적으로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의 슬로건아래 시작된 참여정부의 등장이며, 내적으로는 그동안 다양한 영역과 계층에서 진행되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자원봉사운동이 이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가지 측면의 호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서는데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즉 자원봉사자들의 힘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2002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최근의 재난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는 항상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자원봉사운동이 범국가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3. 자원봉사현장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방향성을 모색

자원봉사의 역사는 짧게는 10여년의 역사를, 길게는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까지 우리의 자원봉사역사를 제대로 정리해놓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원봉사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는 개별 기관차원, 조직차원에서 조사한 사례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운동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은 현장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자원봉사역사를 제대로 정리해내고, 조사와 실태분석을 통해 지금의 자원봉사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 현장실무자, 행정기관등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4. 전국조직의 창설과 자원봉사계의 새로운 도약

발제문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만 5월중순에는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계에 있어서 범정치지적 협의체이며, 전국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 전국조직이 창설될 예정이다. 그동안의 자원봉사현장이 여러각도로 각분되어 하나의 힘을 발휘하지못한 점에서는 이번 전국조직의 창설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본다. 특히 당면하고 있는 자원봉사지원법의 제정과, 범국민적 프로모션·연구 및 정책개발과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을 가질 수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운동이 갖는 특수성, 행정기관의 부처간의 갈등, 중복의 문제, 각 지역별로 겪고 있는 자원봉사협의체의 갈등등을 감안한다면, 또다른 방대한 조직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을 현장실무자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은 그 지역사회내에서 자원봉사의 다양한 욕구들을 수렴하고,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비롯하여 정책개발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운동을 주관하기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물론 지금의 센터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체성을 찾지못하고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전국조직이 창설되면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들이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들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자원봉사자를 국가자원으로 인식하고 범국민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지금의 자원봉사현장은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본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자원봉사를 국가의 적극적인 자원으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등장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중심에 국민을 내세우고 있으며, 서두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국가의 발전과 수준을 맞추는 국민운동으로서의 자원봉사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6. 자원봉사를 통한 민족의 정체성회복과 통일운동.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남을 돕는 민족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남을 돕는 활동의 중심은 바로 자원봉사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자원봉사는 내부적으로여러가지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에 자원봉사문화가 뿌리내리기위해 노력해야하며, 외부적으로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인식전환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본다.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통일운동으로서의 방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더 미래지향적이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해법중에 하나로서 자원봉사운동의 자리매김을 논의해야 한다.

7. 자원봉사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자.

그동안 우리자원봉사계의 모습과 역사는 '어느날 갑자기'의 신화들로 이어져왔다. 정치적 공약에 의해, 개별단체의 필요에의해, 행사를 치루기위한 구색갖추기의 일환으로 등 많은 부분에서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또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원봉사현장이 존재하지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현실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계, 자원봉사현장실무자, 행정등에서는 자원봉사의 본질을 연구하고 활성화하기위해 변화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오고 있다. 자원봉사발전의 역사에 이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제는 우리자원봉사계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시급한 과제가 자원봉사운동의 실천행동강령으로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전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우리사회가 자원봉사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그동안의 노력들을 중심으로 변화발전의 도약기를 맞게 될 것이다.

8. 마무리하며

본 토론자는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자원봉사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나 대안들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사회가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내용이 다소 원론적인 당위성만 지적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의 이 자리가 구체적인 부분을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않을 것 같아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봤던 문제들, 그러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현장에 몸담아 열심히 일해온 실무자로서 지금 느끼는 심정을 전하고 싶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였으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야할 길은 어디인지..등에대한 물음을 이 자리에서 던지고 싶었다. 지금은 그 해법을 다함께 논의하고 찾아야 할 때이다. 더 늦기전에...

회원가입 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을 드립니다.

- 정기포럼, 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회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411401-01-115717 국민은행, 예금주: 금창태[한국자원봉사포럼]»

가입비: 30,000원

=====

우)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 Fax : 02-778-1047
 E-mail : kovof@hanmail.net / H-page: www.volunteerforum.org

..... 절 취 선

포럼 (회원) 입 회 신 청 서

성명	한글			주민 등록 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 위		
연 락 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팩스		
	자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휴대 전화		
전자 우편						
<p>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3.</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_____</p>						

제34회 정기포럼 자료집
참여정부와 민간자원봉사계의 과제

발행일 : 2003. 4.

발행처

한국자원봉사포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Fax : 02-778-1047

H-page: <http://www.volunteerforum.org>
